

「제19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선정 결과

올해로 19회를 맞은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이 선정되었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국토 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최우수 논문과 우수 논문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심사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 올해에도 선정위원회에서는 국토정책의 활용성, 연구 내용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논문 1편, 우수 논문 4편을 선정하였다.

구분	논문 제목	연구자	소속	시상 내역
최우수	서울시 성장상권과 쇠퇴상권 내 외식산업의 생존을 비교	이동현 이재경 천상현	홍익대학교 도시계획과 석사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상금 200만 원
우수상	지역 특성이 주민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	강동우 안주엽 남수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상금 100만 원
	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독점지대의 발생과 의미에 관한 연구	송하승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교통접근도가 인구유입 및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종훈 김찬성 이성우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교수	
	동북아시아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의 비교: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문승운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제19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심사평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이동현, 이재경, 천상현의 “서울시 성장상권과 쇠퇴상권 내 외식산업의 생존을 비교”는 서울시 외식산업을 대상으로 상권의 시계열적 변화를 반영하여 성장상권과 쇠퇴상권 내 상업시설의 생존과 폐업을 분석한 논문이다. 상권활성화지수를 산출하여 서울시를 5개의 상권유형으로 구분하고, 카플란-마이어 방법을 사용해 상권유형별로 외식산업의 생존함수를 도출하여 성장상권에 위치한 사업체의 생존율이 쇠퇴상권에 위치한 사업체의 생존율보다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내 경제구조상 자영업자의 잦은 폐업은 국가 및 개인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폐업요인을 상권의 유형에 따라 분석하고 폐업 감소를 위해 상권유형별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은 주제가 참신하고 시의성이 높다. 또한 분석대상 선정, 분석방법, 결과 해석, 정책적 대안에 이르기까지 밀도 있는 논리구조를 보여주고 있어 본 논문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강동우, 안주엽, 남수연의 “지역 특성이 주민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은 우리나라 지역 특성과 주민의 행복도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삶의 인식 부가조사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구 수준의 지역특성이 개인의 주관적 행복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개인, 가구, 시군구, 광역시도의 4수준 다층모형을 설정하였고, 광역시도 수준의 임의효과항과 시군구 수준의 설명변인 간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지역 고정효과 선형모형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지역의 평균 연령, 고용률, 인구밀도, 자가변동률, 사회복지시설 수, 도로포장률이 개인의 주관적 행복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개인의 행복이 개인의 소득이나 연령, 건강과 같은 개인적 속성뿐만 아니라, 앞서 제시한 지역의 여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공간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지역 연구에 있어서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를 채택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분석방법이 연구 목적에 적절하며, 분석 결과가 이론 및 상식에 부합되는 합리적 결과로서 정책적 시사점도 풍부하다는 점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송하승의 “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독점지대의 발생과 의미에 관한 연구”는 독점지대가 주택시장 금융화 등 제도적 변화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고 2000년대 초중반에 주택시장에 금융화가 도입된 이후 독점지대의 발생과 양상을 분석한 논문이다. 논문에서는 이층차분모형을 사용, 주택시장 금융화의 도입에 따른 독점지대를 경제적 분절과 사회적 분절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결론적으로 주택시장이 금융화되면서 강남의 주택시장처럼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의 독점지대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주택금융이 오히려 소득계층에 따라 주택시장을 경제적으로 분절시켰다는 주장이다. 이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DTI, DSR 등 소득기반형으로 전환된 주택금융이 신도시, 도시재생 등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독점적 지대와 함께 주택시장의 분절을 심화시켜 소득이 낮은 청년과 저소득층의 주거시장 진입자체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주거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혼돈의 부동산 시장과 쏟아지는 관련 정책 속에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진단을 내리고 주거격차에 관한 정책방향에 대해 진지한 고민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박종훈, 김찬성, 이성우의 “교통접근도가 인구유입 및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은 지역의 도로 및 철도 접근도가 지역의 인구유입과 GR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교통 SOC 투자가 지역성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특히, 2005년부터 2016년까지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패널데이터를 사용하고,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공간구조에 적합한 공간패널모텔(SAC와 SDM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분석을 위한 요인으로 도로 접근도, 철도 접근도, 도로 및 철도 접근도, 효용접근도 등 4개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로는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등 9개의 요소를 선정하여 통계적 유의미를 제시하는 등 연구방법과 결과 도출 과정이 논리적이고 적절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향후 교통접근도 개선정책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교통접근도가 도시지표에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교통-도시 융복합 연구로서도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도시와 교통의 융복합 연구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문승운의 “동북아시아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의 비교: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국, 중국 및 일본을 대상으로 소비 및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교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다. 한국과 일본에서 소비되는 재화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한다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배출원 관리, 도시공간관리를 넘어서 동북아시아를 대상으로 초국경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 한 국가의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연구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올해에도 「국토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2021년 2월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